



스몰캡

하반기 전망

대선 이후 주목해야 할 중소형주

미래산업/미드스몰캡. 나승두, 박찬솔, 허선재



미래산업/미드스몰캡

대선 이후 주목해야 할 중소형주

지금껏 치러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과정과 전후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양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각 후보/정당별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되면서 공약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기업의 수혜 또는 피해 강도에 대한 의견이 등장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단기간 주식시장에 반영되며 변동성을 만들어내지만, 정치적 이벤트로 단기간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반대로 중장기 정책적 수혜 산업이나 기업이 발굴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커다란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전후 단기간 이벤트 요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분명한 것은 단순히 정치 테마에 편승하는 단기간 투자 전략 외에도 차기 정부의 방향과 거시적 환경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투자 전략 수립을 고려해볼 시점이라는 점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T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고, 이는 벤처 및 통신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와 바이오 산업의 성장 의지가 강했고, 실제로 바이오 및 게임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 또, 각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개혁 의지도 주식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가속화시켰고, 노무현 정부에서의 국민연금 및 공모펀드 투자 열기는 증시 레버리지 효과로 이어졌다. 물론 거시경제 흐름에 따른 방향성은 무시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IMF 구제금융과 글로벌 IT 버블을 극복해야 했고, 이명박 정부는 리먼 쇼크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따라서 단기적 정치 테마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의 방향성과 거시적 환경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투자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alyst 나승두 / 박찬술 / 허선재

nsdoo@sk.com / 3773-8891

rightsearch@sk.com / 3773-9955

sunjae.heo@sk.com / 3773-8197

주요 정당 21대 대선 10대 공약

| 공약 순위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 힘 | 개혁신당 |
|-------|-----------------------------------------------------------------------------------------------------------|-----------------------------------------------------------------------------------------------------------------|--------------------------------------------------------------------------------------------------------|
| 1 | ▶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신성장기반 구축 K-콘텐츠 지원 강화, 글로벌 빅5 문화강국 K-방산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 ▶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 경제 대전환 민간 및 기업 자율성과 창의성 극대화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 ▶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부처 개편 및 축소,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 3부총리제 도입, 책임운영체계 구축 예산 편성 기능 이관, 정부기구 효율화 |
| 2 | ▶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내란극복,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검찰 개혁 완성, 사법 개혁 완성 | ▶ AI/ 에너지 3대 강국 도약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생태계 조성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 실현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 | ▶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국내 기업 리쇼어링 촉진, 특별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 임금차등 적용 등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 |
| 3 | ▶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 경제 실현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산업육성기반 마련 | ▶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개혁, 청년 부담 완화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 군가산점제 도입 | ▶ 법인에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별 법인에 경쟁 체계 구축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 |
| 4 | ▶ 세계질서 변화 실용적 대처 외교안보 강국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한반도 평화 실현 국익과 실용 기반 하 주변 4국과 관계 발전 식량안보 차원 주요 농산물 공급 기반 구축 | ▶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광역철도/도시철도 확충, 30분 출퇴근 혁명 중앙정부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 | ▶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지역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 고려 지자체 자율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기본 최저임금 기준 30% 내 가감 결정 권한 |
| 5 | ▶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나라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치료 권리 확보 | ▶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중산층 감세 추진,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부동산 제도 개편 | ▶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신/구 연금 재정 분리 구연금 미적립부채 관리 방안 시행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 |
| 6 | ▶ 세종 행정수도, 5극 3특 추진 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추진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잡사니즘,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 평생 복지 구현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 |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학습지도실 도입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 허위신고 보호 교사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
| 7 | ▶ 노동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사회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실현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주 4.5일 도입/확산, 노동시간 감축 | ▶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 경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 경감, 금융지원 확대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확대 | ▶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청년 도전 응원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 기회 평등 실현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 출시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선택 및 전환 가능 |
| 8 | ▶ 아동/청년/어르신 모두 잘 사는 나라 생활안정과 생활비 절감 추진 빈틈없이 기본 보장되는 사회 추진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 ▶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사후 수습에서 사전대비로 전환 드론/로봇 기술 활용 재난 감시 모니터링 정부/지자체/민간 정보 공유 플랫폼 강화 | ▶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단기복무 간부 선발제도 도입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제도 도입 |
| 9 | ▶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율/한도 상향 추진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 ▶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정치/사업/선거관리 제도 개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간첩법,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 확대 | ▶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기준국가 규제 사례 제시, 그대로 적용 규제심판원 설치 및 절차 통합 분야별 규제기준국가 설정, 법령 개정 마련 |
| 10 | ▶ 미래 세대 위해 기후위기 적극 대응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2030 서해안, 2040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 ▶ 복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더욱 강화, 핵 잠재력 강화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 K-방산 육성 | ▶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 혜택 제공 |

자료: SK 증권

핵심 공약 공통 분모 네 가지

① “K”- AI/방산

새로운 경제 성장을 주도할 산업을 찾겠다는 움직임은 각 정당별 공통적으로 언급된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AI 와 방산, 그리고 콘텐츠이다. 특히 AI 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확대는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공통적으로 약 100 조원 수준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AI 관련 기술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GPU, NPU, HBM 등 차세대 AI 인프라를 주도할 국가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AI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우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연구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의 경우 이미 대규모 수출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수출 증대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의지가 보인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제도적/금융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I 와 방산 등의 연결고리가 언급되는 점도 특징적이다. AI 를 연계한 복합전투체계 마련을 넘어 AI 를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확대한다는 의지로 보인다. 의료/농업/국방/기초과학 등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②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AI 산업 확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에너지 수요 증가에 발맞춰 원활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제시된 부분 중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눈에 띈다. 탈탄소화,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의 제고 방안 마련도 많이 언급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인가, 원자력 발전소 및 SMR 기반 에너지 구축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적절히 조합하는 과정, 그리고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충에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③ 서민경제의 회복

모두가 서민경제의 회복을 주장한다. 특히 가게 및 소상공인, 청년들의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생계 유지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중이다. 이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의 성장과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장려책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한 지역 소비 촉진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된 구체적 행동 방안에는 이견이 있어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적절히 조합하여 늘릴 것인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거나 공제 확대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인가의 차이이다.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의 소비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소비재의 반등도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아동/청년 및 신혼부부,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안심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산업과 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④ 지역 균형 발전과 규제의 혁신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포함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도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히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줄이고 지자체의 권한은 확대하면서 자체 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추진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 물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GTX 등 교통 인프라의 개선도 필요하고, 관광 상품 개발 확대 등도 필요하다. AI 산업 성장 등 새로운 성장 산업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도 보인다. 이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도 강해보인다.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나 특례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범위나 기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통 분모에서 찾는 중소형주

"K"-AI/방산

AI 기술 개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등 HW 업종 수혜가 먼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SW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의료 AI, 방산 AI, AI 보안 등 파생 SW에 주목한다. 방산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접적인 무기 또는 무기체계의 수출 확대보다 소재부품 국산화, MRO 등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 관심종목: 솔트룩스 / 루닛 / 샌즈랩 / 로보티즈 / 에이릭스 / 엠엔씨솔루션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AI 산업 확대에 필연적인 에너지 공급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될 전망이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활용할 수 있는 방안,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구조가 된다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저장/활용의 중요성이 더 크게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SS 및 그린수소 설비 확충,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에 시도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관심종목: 지엔씨에너지 / 경동나비엔 / 비에이치아이 / 에스에너지 / 그리드위즈

서민경제의 회복

FLEX의 시대를 지나 가성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지역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소비자 만족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상품권 활용이 커지면서 간편결제나 핀테크 사업의 중요성도 부각될 전망이다. 청년/신혼부부 지원은 주택 건설에 대한 수요 확대, 노인/저출산 지원은 가정용 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 체계에 대한 수요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관심종목: 지누스 / 엠아이텍 / 오스테오닉 / 리뷰코퍼레이션 / 네오팜 / 제시믹스 / 그리티

지역 균형 발전과 규제의 혁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색 있는 성장 산업의 자리매김이 중요하다. 글로벌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자동화/로봇/AMR 분야의 국내 시장 개화가 기대된다. 지역 균형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교통인프라 개선, 관광 상품 등에도 주목한다.

※ 관심종목: 레인보우로보틱스 / 유일로보틱스 / 다원시스 / 대아티아이 / 에스트래픽

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